

# 2024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모의논술 인문계열 [문제 1] 해설 및 모범답안

##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모의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1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인문계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집단주의, 개인주의, 유행, 자존감, 부동심, 아파테이아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 문항 및 자료

[문제 1] ㉠을 (가)와 (나)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의 근거를 (다)에서 찾아 서술한 다음, ㉢의 이유를 (라)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벌겋게 부어 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을까.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 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들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는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렵פות하게 느낄 무렵, 소음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 가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 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생활의 짐은 한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⑦ 날카로운 가시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찢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찢러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에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에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나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뽑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아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 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뽐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아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나)

우리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기도 한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의존하며, 올바른 행위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결과론이라고 한다.

결과론은 행위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도덕적 문제 상황은 다양하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론은 행위의 가치는 각 상황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결과론은 좋은 결과의 산출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면,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결과론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경험론을 계승한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 벤담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고통과 쾌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한편으로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또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두 주인의 왕조와 고정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벤담에 따르면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무엇을 행위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즉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행위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벤담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공리란 유용성을 의미하며, 벤담이 말하는 유용성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그는 사회란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쾌락은 사회 전체의 쾌락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다)

귀퉁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온전치 못한 동그라미가 있었다. 동그라미는 너무 슬퍼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여행하면 동그라미는 노래를 불렀다.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어요. 잃어버린 내 조각 어디 있나요.” 때로는 눈에 묻히고 때로는 비를 맞고 햇볕에 그을리며 이리저리 헤맸다. 그런데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빨리 구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힘겹게, 천천히 구르다가 멈춰 서서 벌레와 대화도 나누고, 길가에 핀 꽃 냄새도 맡았다. 어떤 때는 딱정벌레와 함께 구르기도 하고, 나비가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다.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몸에 꼭 맞는 조각을 만났다.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어 이전보다 몇 배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가 있었다. 그런데 떼굴떼굴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다. 꽃 냄새도 맡을 수 없었고, 확확 지나가는 동그라미 위로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다.

“내 잃어버린 학, 조각을 학, 찾았어요! 학!”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구르다 보니 숨이 차서 부를 수가 없었다.

㉞ 한동안 가다가 동그라미는 구르기를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살짝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몸으로 천천히 굴러 가며 노래했다.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어요…”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라)

서른 살이 넘어도 아직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공연히 속도만 내는 젊은이들을 가끔 본다. 그럴 경우, 어떤 젊음의 속도를 낸들 그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못 들어선 산길에서는 아무리 바쁜 걸음을 걸어도 산정에 다다를 수 없다. 내비게

이선을 따라 운전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 방향을 놓치고도 미처 그 사실을 모른다면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아무런 목적지도 방향도 없이 이륙했다면 그 비행기는 아무 데도 착륙하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비행기가 방향 없이 속도를 내지 않고, 배도 방향 없이 달려가지 않는다. 만일 그 배가 돛단배라면 바람의 방향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돛의 방향에 의해 움직인다. 돛단배의 방향은 바람의 방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려 있다.

인생의 방향도 타인에 의해 설정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설정된다. 물론 그 방향은 선하고 성실한 방향이어야 한다. 선한 방향이 아니면 누구의 인생이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인생이라는 여행의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목표 지향적 여행보다 경로 지향적 여행이 바람직하다. 목표 지향적 여행을 하게 되면 자칫 방향보다 속도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천박한 속성인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속도를 내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뒤처지면 인생 자체가 낙오된 듯 여긴다.

그러나 경로 지향적 여행을 하게 되면 인생의 속도는 줄어든다. 어디를 거쳐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며칠 밤을 묵고 갈까 하는 여유를 지니게 된다. 그런 여유속에서 인생은 목표보다는 경로가, 속도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길 또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저 오솔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가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되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고 넓어짐으로써 자족하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된다.

목표 지향적 여행을 하게 되면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다. 그 길이 끝나면 인생이 곧 끝나버리는 줄 알고 좌절하게 된다. 인생의 여행길에서 누구나 짊어지고 가야 할 짐조차 던져 버린다. 목표 지향에서 오는 속도 때문에, 목표를 향해 빨리 가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인생에 꼭 필요한 고통이라는 짐이 무겁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가끔 주위를 둘러보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가는 경로 지향적 여행의 과정 속에서는 무거운 짐도 가볍게 느껴진다. 굳이 빨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짐이 무거우면 잠시 내려놓고 쉬게 된다.

오늘 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들여다본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가벼워 보이는 다른 사람의 짐을 마냥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본다. 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와 속도가 아니라 경로와 과정이다.

## 출제 의도

- 목표와 방향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성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과 결과지향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속도와 조급함과 좌절감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인생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로와 과정 또한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생의 무게와 고통과 실패를 짊어지고 감내해가는 과정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 본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자신의 삶의 성찰, 경로지향적인 삶의 의미, 삶의 가치와 행복에 대한 공리주의 사상을 논제로 삼아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제했다.

## 출제 근거

###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성취 기준 1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관련	
	제시문 (가)	
	과목명: 독서	
	성취 기준 1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관련	
제시문 (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성취 기준 1	[12화작01-01]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12화작01-02] 화법과 작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관련		
제시문 (라)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성취 기준 1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나)		

##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국어	이삼형 외 7인	지학사	2018	242-244	제시문 (가)	X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9인	미래엔	2019	147-148	제시문 (나)	X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5인	지학사	2019	95	제시문 (다)	X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이삼형 외 5인	지학사	2019	43-44	제시문 (라)	X

### 문항 해설

- 본 문제의 취지는 ㉠의 가시로 표현된 인생의 고통에 대한 (가)의 저자와 (나)의 공리주의 관점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에서 언급하는 완벽한 삶이 왜 오히려 덜 행복한지를 (다)에서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다니는 동그라미의 여정을 활용하여 서술한 후, ㉢에서 동그라미가 찾았던 조각을 다시 내려놓은 이유를 (라)의 목표지향적인 삶과 경로지향적인 삶의 개념과 내용을 활용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제시문 (가)는 탱자나무의 가시라는 소재를 이용해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수필로 날카로운 가시를 피할 수 없는, 그렇지만 삶의 의미와 원동력인 인생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모든 행위는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행위의 목적이 라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저자인 셸 실버스타인이 쓴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동화의 일부로 완벽한 삶보다는 조금은 부족하고 느린 삶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시문 (라)는 목표지향적 삶보다는 경로지향적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는 수필이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능력, 각각 제시문 (가)와 (나), 제시문 (가)와 (다)의 핵심 내용을 관련짓는 능력, 제시문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관점을 설명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 아래 ①~⑤의 각 항목당 최대 10점씩, 합계 50점.</p> <p>① ㉠ 날카로운 가시에 대한 제시문 (가) 저자의 관점을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b>Key words: 고통, 로트레크, 인생의 가치</b></p> <p>② ㉡ 날카로운 가시에 대해 제시문 (나) 빈담의 공리주의의 관점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b>Key words: 공리주의, 고통과 쾌락, 결과, 행복</b></p> <p>③ ㉢의 근거에 대해 제시문 (다)의 동그라미의 행동과 경험을 활용하여 적절히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b>Key words: 동그라미, 벌레, 꽃냄새, 나비, 노래</b></p> <p>④ ㉣의 이유를 제시문 (라)의 목표지향적 삶과 경로지향적 삶의 개념을 활용하여 적절히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b>Key words: 목표지향적, 경로지향적, 속도, 과정</b></p> <p>⑤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p> <p>⑥ 총 글자 수 600-700자는 5점 감점</p> <p>⑦ 총 글자 수 500-600자는 10점 감점</p> <p>⑧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최대 20점 이하 점수 부여</p> <p>⑨ 총 글자 수 800자 초과는 5점 감점</p> <p>⑩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p>	

## 예시 답안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다. 사람들은 가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삶을 혐오하지만 가시는 없애려고 할수록 더 고통스럽게 사람을 찌른다. 그러나 로트레크가 장애를 극복하고 걸작을 남겼듯이 우리가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인생의 가치를 높여 주고 인생을 소중하게 만든다. 우리 삶에서 가시는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할 대상이다. (나)에서 벤담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고통과 쾌락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행위의 목적이 된다. 공리주의에서는 인생의 가시인 고통은 행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다)에서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은 동그라미는 그전보다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지만 벌레와 대화하기 위해 멈추거나 꽃 냄새를 맡을 수도, 나비가 앉아 쉴 수도 없었으며, 숨이 차서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다. 이처럼 완벽한 삶이 일상적 삶의 단면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 모자람이 없는 삶이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의 목표 지향적 삶에서 사람들은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빨리 낸다. 목표 지향적 삶에서는 목표가 하나이고 목표를 이루고는 그 끝에서 좌절하게 된다. 그러나 과정 지향적 삶에서는 목표보다는 경로가, 속도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과 인생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이 더 깊고 넓어진다. ©에서 동그라미는 인생의 여정에서 고통이라는 짐을 받아들이고 목표와 속도가 아니라 경로와 과정이 더 중요함을 성찰하였다. (796자)